

就任辭



이준섭

한국보험계리사회 제28대 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보험업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8대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 이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계리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향한 여러분의 지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혁신을 향한 간절한 갈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산업은 IFRS17 안착과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전례 없는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데이터가 방대해 질수록 그 이면의 가치를 읽어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리사의 전문적 판단'은 보험산업의 더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임기 동안 다음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째, 계리사의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효율화하고, 계리사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니어에게는 최첨단 IT 역량을, 시니어에게는 통찰력 있는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여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계리사만의 영역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사무국에 실무 전문가를 상주시켜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계리사회'를 넘어 '해결하는 계리사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열린 투명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제와 실시간 총회 중계를 도입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회장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닌, 회원 모두의 지혜가 모이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변화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고단한 길에 계리사회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회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계리사라서 행복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제28대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 이준섭